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 분석 :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문 장 권**

•요 약•

본고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북한의 군사혁신은 ‘전략환경 인식’,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라는 세 분석축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핵·전략무기의 실전화와 함께 우주·사이버·무인체계 등으로 미래전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당 중심의 정책집행구조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시험·전력화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와의 폐쇄형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술·부품·정보 및 전장경험을 보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혁신이 ‘전략환경 인식-내부적 정책집행-외부자원의 선택적 연계-미래전 수행능력 형성’이라는 연속적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의 대응방향으로 ① 미래전 전략환경 조기경보체계, ② 한국형 통합 군사혁신 감시체계, ③ 북중·북러 군사기술 연계 추적 및 확산통제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주제어 : 미래전 전략, 군사혁신, 복합지정학, 네트워크 국가 이론, 전략환경 인식,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

I. 서론

21세기 국제 안보환경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무인체계, 우주 및 사이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의 양상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5년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하였음.

**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군사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특히 미래전(future warfare)은 전통적인 육·해·공 전장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정보공간 등을 포괄하는 다영역 전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 여부가 미래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아울러, 각 국가의 군사력의 우위 여부는 단순한 병력 규모보다 정보·기술·네트워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은 정보·기술·조직 차원의 군사혁신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군사혁신 모델과 전략구조가 제안되고 있다.¹⁾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핵심 행위자인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military innovation)’²⁾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3년 신년사에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 수 있는 우리 식의 현대적 무장장비를 갖춘 백두산혁명 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하였다”라고 천명하며³⁾, 핵무기 고도화와 전략무기 실전화, 전장공간의 다층화에 기반한 군사전략 전환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은 전략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와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폐쇄형 국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군사적 역량들을 갖추어나가도록 지시했다.⁴⁾

“국방력 강화는 국가중의 국사이며 강력한 총대우에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도 평화도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백두산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노동신문 2014/1/1).

-
- 1) 미래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과 관련한 연구물은 아래와 같음. Thomas X Hammes. 2006.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Minnesota: Zenith Press; Lawrence Freedman. 2017. *The Future of War*, New York: PublicAffairs; Robert H Latiff. 2017. *FUTURE WAR: Preparing for the New Global Battlefield*, New York: ALFRED A. KNOPF; Sean McFate. 2019. *The New Rules of War*, New York: William Morrow Paperbacks; Paul Scharre. 2019. *Army of None : Autonomous Weapons and the Future of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Raphael Cohen, S. et al. 2020.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Santa Monica, Calif.: RAND; Mark Cancian, F., Matthew Cancian, Eric Heginbotham. 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Washington, D.C.: CSIS; 김상배 엮음. 2022.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서울: 한울아카데미.
- 2) 본고에서 군사혁신 개념은 전략·교리, 군사기술, 조직·편성에서 혁신을 통한 전투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문장권. 2020.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군사혁신 방안 연구: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시 효과 분석”, 『군사연구』 제150집, 육군군사연구소, 83.
- 3) “신년사”, 『노동신문』 2013년 1월 1일.
- 4) “신년사”, 『노동신문』 2014년 1월 1일.

이러한 발언은 김정은 시기 북한이 단순한 재래식 전력 증강을 넘어 첨단기술 기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존 북한 미래전 및 군사혁신 관련 연구들은 핵전략, 전략무기 개발, 군사력 증강과 같은 개별 현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래전 전략이 어떠한 구조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군사혁신이 어떠한 추진구조를 통해 구현되는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에 본고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과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이론을 북한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김정은 시기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래전 전략이 어떠한 ‘전략환경 인식’ 속에서 형성되고, 이것이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와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어떻게 군사혁신으로 구현되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통해 북한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한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질문을 설정한다. 첫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은 어떠한 전략환경 인식 속에서 형성되는가? 둘째, 이러한 전략적 인식은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와 폐쇄형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군사혁신으로 구현되는가? 셋째, 이러한 북한식 군사혁신 추진구조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며 한국의 안보·국방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재해석하여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전략환경 인식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한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분석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결합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북한의 미래전 관련 기존 연구는 주로 군사전략의 연장선에서 미래전 개념을 해석하

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략사고와 군사력 운용의 역사적 연속성에 주목해 왔다. 이들 연구는 북한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어떠한 군사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략·교리, 군사기술, 조직·편성 등 군사혁신의 주요 요소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분석하였다.⁵⁾ 특히 김정은 시기에는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전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질적 개선, 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전술핵 전력의 확대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력구조 변화와 미래전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⁶⁾

그러나 기존 연구는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개별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의 발전을 규명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미래전 전략이 어떠한 전략환경 인식 속에서 형성되고, 이를 실제 군사능력으로 전환하는 군사혁신 추진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하나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북한의 군사혁신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발전을 넘어 전략환경에 대한 인식, 당을 중심으로 한 내부 정책집행구조, 제한적인 대외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복잡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북한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를 적용한다. 주요 연구자료는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당대회 및 주요 회의 보고, 국방력 발전 관련 공식자료와 지도자 발언을 비롯하여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 및 전문 연구기관 보고서, 전략무기 개발 관련 공개자료 등이다. 북한의 공식 군사교리와 비공개 전략문서에 대한 접

-
- 5) 북한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어떤 군사전략을 추구해 왔는지를 연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김태현. 2015.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협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제66호; 이동민. 2015.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제2호; 송세관. 2018.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택. 2019.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 제112호; 이병철. 2023.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제63호; 임철균. 2023.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북·중 군사혁신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9권 제1호; 이강경·설현주. 2024.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 6) 북한의 미래전 및 군사혁신과 연관된 핵 및 재래식 전력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래 참조. 김보미·김일기. 202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INSS 전략보고』; 함형필. 2021.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김보미. 2023.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 『INSS 연구보고서』, 제22-02호; 임철균·손한별·류의연. 2023.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구상 연구”,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3호; 문장권·김현식·이한우. 2023.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 제27권 제2호.

군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지도부의 공식 담론, 정책 및 조직 변화, 무기체계 개발과 대외 군사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다만 북한의 폐쇄적 특성상 군사혁신과 대외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사실을 모두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의 증거 수준을 구분하고 복수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지도부의 전략인식과 공식 정책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1차 자료로 활용하되, 체제 정당화와 대내·외 선전이라는 한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군사능력이나 대외 군사협력에 관한 사실은 외부 자료와 교차검증한다. 이를 위해 자료를 ① 북한·러시아 등의 공식 발표와 조약 등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② 한국·미국 등 정부 및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 ③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미국 전략문제연구소)·38 North 등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자료로 구분하여 활용했다. 특히 대북 군사기술 이전과 같이 직접 확인이 어려운 사안은 증거 수준에 따라 ‘확인’, ‘평가’, ‘추정’, ‘가능성 제기’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확인된 사실과 외부기관의 평가 및 연구자의 해석이 혼재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본고는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을 ‘전략환경 인식-내부적 정책집행-외부자원의 선택적 연계’라는 상호연계된 과정에서 분석한다. 복합지정학적 시각을 통해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과 미래전 전략의 형성을 분석하고, 재해석된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인식이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와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를 거쳐 군사능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군사전략 및 무기체계 중심 연구를 보완하고, 북한 군사혁신 추진구조의 특징과 이에 따른 한국의 안보·국방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1) 북한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군사전략 연구는 김일성 시기의 전면전 전략, 김정일 시기의 선군정치와 비대칭 전략, 김정은 시기의 핵무력 중심 전략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변화 과정에 주목해 왔다. 김태현(2015)은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를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협관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북한이 재래식 전력 열세를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송세관(2018)은 북한 군사전략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면서 선제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이라는 전통적 전략원칙이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상택(2019)은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며 김정은 시기의 군사전략 역시 기존 전략유산 위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김정은 시기 핵전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군사전략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강경·설현주(2024)는 북한이 핵무력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래식 전력과 전략무기의 결합을 통해 군사전략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는 북한 군사전략 변화의 역사적 맥락과 전략적 의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군사전략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한 군사전략이 어떠한 정책결정 구조와 기술·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북한 핵전략 및 전략무기 발전에 관한 연구

북한의 핵전략과 전략무기 개발에 관한 연구는 김정은 시기 들어 가장 활발하게 축적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함형필(2021)은 북한의 전술핵 개발을 중심으로 핵전략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기존 최소억제 개념을 넘어 실제 군사작전에 활용 가능한 핵전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병철(2023)은 북한 핵전략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핵무기가 단순한 체제생존 수단을 넘어 정치적·군사적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김보미(2023)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방향을 분석하면서 ICBM, SLBM, 극초음속 무기, 군사정찰위성 등이 북한 군사력 현대화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였다. 문장권·김현식·이한우(2023)는 김정은 시기 핵·미사일 전력 증강 과정을 분석하면서 핵전력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운용체계의 다양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 전략무기 개발의 기술적 진전과 군사적 함의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전략 및 무기체계 발전을 주로 기술적·군사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 전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 정책집행 구조나 국제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3) 북한 미래전 및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첨단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북한의 미래전 구상과 군사혁신을 분석하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임철균(2023)은 북한 군사혁신과 중국 군사혁신

간 유사성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과학기술 기반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철균·손한별·류의연(2023)은 북한의 미래전 구상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이버전, 우주전, 무인체계 활용 확대 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상배(2022)는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에서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을 비교 분석하면서 군사혁신이 단순한 기술발전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문화, 정치체제, 거버넌스 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래전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기술 영역이나 전략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북한 미래전 전략의 형성요인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4) 북한 사이버전 및 신홍안보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전과 ‘신홍안보(emerging security)’⁷⁾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⁸⁾ 김인수(2015)는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비대칭 전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호홍·김일기(2020)는 북한이 감염병·환경·자연재해 등 신홍안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태은·지성태(2024)는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이 보건·환경·식량·사이버 영역 등 신홍안보 문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상배와 신범식(2017)은 복합지정학 이론을 통해 전통안보와 신홍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안보환경을 설명하였으며, 사이버·우주영역 등이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북한이 미래전 수행을 위해 전통적 군사력뿐 아니라 신홍안보 영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개별 영역에 대한 분

7) 신홍안보의 개념은 복잡계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 진화생물학 등에서 생산된 이론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 신홍안보는 시스템 내 미시적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여 이른바 ‘양질전화(良質轉化)’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즉 일본의 원전사태, 북한의 사이버 공격, 탈북 및 이주문제 등의 문제가 다른 여러 요소들과 연계되어 사소한 문제들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안보와 비 전통적 안보 개념이 융합되는 모습을 일컫는다. 김상배·신범식 엮음, 2017, 『한반도 신홍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325.

8) 김인수, 2015.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김호홍·김일기, 2020.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남북한 협력 방향: 감염병, 환경,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2020-7; 김태은·지성태, 2024.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북한 미디어 기반 신홍안보 동향 분석”, 『아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석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5)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학문적 기여

기존 연구는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 핵·전략무기 개발, 미래전·군사혁신, 사이버전·신홍안보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전 전략이 어떠한 구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전략이 어떠한 추진구조를 통해 군사혁신으로 구현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북한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네트워크 국가 이론이 강조해 온 개방성과 수평적 연결의 논리를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대외적 폐쇄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수직통합적이면서 외부적으로는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북한 특유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략환경 인식-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라는 세 가지 분석축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분리된 현상이 아닌 상호연계된 과정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권위주의적 폐쇄국가의 군사혁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2.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적용 타당성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이나 무기체계 발전을 넘어 전략환경의 변화와 내부 정책집행구조, 대외 협력네트워크를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혁신은 핵·전략무기 개발뿐 아니라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전쟁영역의 부상과 중국·러시아 등 제한된 외부 행위자와의 기술적 연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한다.

먼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은 전통 지정학이 강조해 온 영토·군사력 중심의 경쟁을 넘어 사이버·우주·정보네트워크·첨단기술 등 새로운 전략공간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전통안보와 신홍안보가 교차하면서 형성되는 다중안보공간과 그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전은 육·해·공의

전통적 전장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AI 기반 정보영역 등이 상호 연결되는 다영역 전쟁의 성격을 갖는다.⁹⁾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은 이러한 복합지정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북한은 한반도의 전통적 군사대치와 핵억제를 중시하는 동시에 미사일방어(MD), 우주기반 정보·감시·정찰(ISR), 사이버 및 첨단 군사기술 등 변화하는 전략환경에 대응하여 핵·ICBM·SLBM뿐만 아니라 정찰위성, 무인체계, 사이버전 및 전자전 능력 등을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래전 전략은 단순한 핵·미사일 전력 증강을 넘어 전통적 전장과 신형 전략공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인 전략환경 인식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복합지정학만으로는 이러한 전략적 인식이 어떠한 조직과 정책집행 과정을 통해 실제 군사능력으로 전환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고는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 이론을 함께 적용한다. 네트워크 국가 이론은 국가의 정책결정과 전략 수행이 단일 조직의 활동이 아니라 정부·군·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 간 연결과 자원의 동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일반적인 네트워크 국가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연결을 강조한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재해석이 필요하다.¹⁰⁾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 노동당을 정점으로 전략결정에서 연구개발·군수생산·시험·전력 회에 이르는 과정이 위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관련 당 조직이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성·군수공업부·제2경제위원회·국방과학원 등 관련 기관들이 이를 집행하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가 그 핵심이다. 동시에 북한은 국제제재와 체제적 폐쇄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 등 제한된 외부 행위자와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해외 IT 인력과 제재 회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대외 연결방식을 개방형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로 개념화한다. 즉 북한의 군사혁신은 내부적으로는 강한 정치적 위계성을 유지하면서 외부적으로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은 동일한 현상을 중복하여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석질문에 답하는 상호보완적 분석틀이다. 복합지정학은 북한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전쟁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네트워크 국가 이론은 이러한 전략적 인식이 어떠한 내부 조직과 대외 연결구조를 통해 정

9) 김상배·신범식 엮음, 2017, 21-25.

10) 김상배, 2021,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세계정치 연구의 이론적 기초』,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31-43.

책과 군사능력으로 전환되는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따라서 전자는 북한 미래전 전략의 형성이라는 ‘전략환경 인식’ 차원을, 후자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와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라는 군사혁신 추진구조의 실행 차원을 분석한다. 본고는 이 두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전략환경 인식 → 정책집행 → 외부 자원·기술의 선택적 연결 → 미래전 수행능력 형성’이라는 북한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추진구조의 작동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3. 북한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의 분석틀

본고는 복잡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기존 이론적 토대를 수용하되, 이를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김상배·신범식(2017), 김상배(2021, 2022) 논의는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민주주의·권위주의를 망라한 8개국 비교의 일반적 분석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틀은 (1) 권위주의 체제의 수직적 권위 통합과 (2) 국제적 고립 하의 제한적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핵심 변인을 동시에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기존 모델은 ‘개방형 수평 네트워크(open horizontal network)’를 전제하고 있기에, 네트워크의 노드(node) 간 위계적 종속성과 외부 차단 하의 선택적 연결이라는 북한의 사례 특수성을 분석에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고는 카스텔스(Manuel Castells)¹¹⁾의 정체성의 힘에 대한 논의와 새센(Saskia Sassen)¹²⁾의 영토성·권위성 논의, 그리고 카홀러(Miles Kahler)¹³⁾의 네트워크 정치학에서 비공식 연결의 권력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김상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세 축에서 동시에 재해석한다. 첫째, 카스텔스(Castells, 2010)에 따르면, 네트워크 사회의 권력 지형은 지배적 제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한 ‘정당한 지배의 네트워크(networks of legitimizing domination)’와, 이에 의해 배제되거나 위협받는 행위자들이 방어적 생존을 위해 형성하는 ‘저항적 정체성의 네트워크(networks of resistance identity)’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 재구성된다. 이를 적용하면 국제적 고립과 제재라는 외부 위협에 직면한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대외적 차원에서는 일종의 ‘저항적 정체성의 네트워크’적 속성을 띠

11) Manuel Castells. 2010.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Wiley-Blackwell, 5-29.

12) Saskia Sassen. 2006. *Territory, Authority, Rights: From Medieval to Global Assemblag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3.

13) Miles Kahler,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78.

지만, 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원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당 중심 수직통합형 네트워크’를 ‘정당한 지배의 네트워크’의 한 유형으로 위치시킨다. 이는 카스텔스가 지적한 ‘네트워크의 형태(morphology)는 맥락 의존적이며 권력관계에 따라 적응된다’는 점을 북한의 사례에 적용한 것이다. 즉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수평적이라는 기존의 전제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 체제가 네트워크의 형태를 수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둘째, 새센(2006)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가의 영토와 권위, 권리를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환(transform)한다’는 논점을 도입하여,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이 ‘폐쇄성’ 자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이론화한다. 이는 김상배 모델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개방성과 폐쇄성의 동시 존재’ 문제를 다룬다. 셋째, 카홀러(2009)의 ‘네트워크 정치학(networked politics)’ 논의에서 차용한 ‘다중 노드 간 비공식 연결(informal ties) 권력’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공식 대(對)중·대(對)러 기술접촉 네트워크를 단순한 ‘제재 회피’가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장하는 새로운 권력 형태로 규범화한다.¹⁴⁾

요컨대 본고의 ‘재해석’은 카스텔스의 형태적 가소성 → 새센의 조립적 영토성 → 카홀러의 비공식 연결의 권력이라는 세 층위에서 동시에 수행된다. 이 세 층위의 결합은 김상배·신범식(2017), 김상배(2021, 2022) 모델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1) 권위주의 체제의 수직적 권위 통합과 (2) 국제적 고립 하의 제한적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핵심 변인을 동시에 포착하도록 분석틀을 확장했다. 위와 같은 이론적 ‘재해석’을 토대로, 본고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첫째는 전략환경 인식이다. 둘째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이다. 셋째는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이다. 이 세 구성요소는 복합지정학(외부 환경 인식)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당 중심 수직통합 + 외부 연결)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포착한다.

위와 같이 본고가 Castells, Sassen, Kahler의 논의를 함께 원용하는 것은 세 이론을 병렬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구성하는 상이한 네트워크의 작동 수준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Castells의 논의는 네트워크가 단순한 행위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권력과 자원이 특정한 연결구조를 통해 조직되고

14) Sean McFate. 2019; Audrey Kurth Cronin. 2020. *Power to the People: How Ope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rming Tomorrow's Terrori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enneth Payne. 2021. *I, Warbot: The Dawn of Artificially Intelligent Conflict*, London: Hurst Publishers; 조현석. 2018.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와 미래 전쟁의 변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권 제1호; 고봉준. 2023. “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의 미중경쟁과 한국”, 『정치·정보연구』, 제24권 제2호.

동원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군·정부기관·군수산업이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Sassen의 논의는 국가의 권력이 영토적 경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초국적 공간이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북한이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기술·자원·정보를 외부로부터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Kahler의 네트워크 논의는 국제정치에서 연결의 존재 자체보다 연결의 위치, 통제 및 중개가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러시아 및 제3국 행위자들과 제한적·비공식적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세 논의는 각각 내부적 조직화, 경계의 선택적 재구성, 외부 연결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상이하지만 상호보완적인 분석수준을 제공하며, 본고는 이를 결합하여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내부적으로 수직통합되고 외부적으로 선택 연결되는 권위주의적 네트워크 구조’로 재개념화한다. 아래 <표 2-1>에 제시된 세 가지 구성요소는 북한이 안보위협에 어떻게 반응하고, 군사혁신을 추진하며, 내부의 정치적·기술적 자산과 외부의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표 2-1>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 분석틀

분석차원	핵심 변수	적용이론	분석내용
외부환경	전략환경 인식	복합지정학	재래식·핵·우주·사이버·AI 위협 인식
내부구조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네트워크 국가, 카스텔스 ‘정당한 지배의 네트워크’, 카홀러 ‘네트워크 권력’	당-군-정 정책집행
외부연계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국가, 새센 ‘조립적 영토성’, 카홀러 ‘비공식 연결의 권력’	북러·북중 협력 및 기술연계
결과	미래전 전략 및 군사혁신 추진구조	통합모델	핵전력 고도화, 전략무기 개발, 다영역 전장 활용 역량 강화

출처: 저자 작성

다시 말해 <표 2-1> 분석들은 김상배 엮음(2022)의 8개국 비교연구에서 제시된 민주주의/권위주의 국가 구분 모델을 보완하여,¹⁵⁾ 북한과 같은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에 특화된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의 분석틀로 기능한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분석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병렬적 변수가 아니라,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을 설명하는 상호연계된 연속적 작동 구조를 구성한다. 먼저 북한 지도부의 전략환경 인식은 변화하는 전쟁양상과 위협을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미래전 수행능력과 군사혁신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전략적 인식과 판단은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를 통해 정책결정에서 연구개발·생산·시험·전력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된다. 동시에 북한은 내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부품·정보 및 전장경험을 중국·러시아 등 제한된 외부 행위자와의 선택적·전략적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보완한다. 따라서 세 분석축은 ‘전략환경 인식 → 내부적 정책집행 → 외부자원의 선택적 연계 → 미래전 수행능력의 형성’이라는 상호연계된 작동 메커니즘을 구성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미래전 전략이 실제 군사혁신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틀은 이후 제3·4장을 연결하는 이론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제3장에서는 복잡지정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북한이 변화하는 전략환경과 전쟁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전 전략을 형성해 왔는지를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재해석된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토대로 이러한 전략적 인식이 당 중심의 내부 정책집행구조와 선택적인 대외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인 군사혁신으로 전환되는지를 분석한다. 결국 복잡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결합은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을 각각 분리된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집행-연계-능력 형성’의 연속적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고의 핵심적인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한다.

Ⅲ.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전략환경 인식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전략적 위협 인식, 체제 기반의 내부 권력 구조, 외부 기술 및 전략 협력체계와의 연계라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복잡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기반으로 본고

15) 김상배 엮음. 2022. 38-41.

가 제시한 세 가지 분석틀 구성요소—① 전략환경 인식, ②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 구조, ③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를 중심으로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1. 전략환경 인식: 전통안보와 신형안보의 복합구조

김정은이 2011년 말 최고지도자로 등장하면서, 북한은 내·외부의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체제생존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알려진 2008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권력 승계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이 제기되었고,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체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계획과 주변국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 자체를 외부의 체제 개입 시도로 간주하였고, 그 결과 대외 위협 인식을 급격히 높였다. 이는 김정은 체제 출범 초기부터 핵무력 강화를 군사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예컨대, 2012년 미국이 발표한 『신국방전략지침』에 대해¹⁶⁾ 북한은 강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대를 집결하는 새로운 방위 전략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군대의 상시 주둔을 추구하며, 임무는 단순히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평화 유지’라고 밝힌다. 남한에 주둔한 미군은 전진 배치 부대이자 ‘전략 기동군’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들의 본질과 역할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남한 꼭두각시 세력은 미국의 침략 전쟁 정책을 실행하는 식민지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2.9.7.).¹⁷⁾

이러한 반응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가 북한에 의해 실질적인 체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그 당시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회피하고 일방적인 제재 조건만을 고수한다고 판단하며, 자위권 차원의 핵전력 강화를 전략적으로 정당화했다.¹⁸⁾ 이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16) 김연수. 2020. “김정은체제하 북한의 안보정책 진단: 위협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2호, 108-109.

17) “미군의 남한에 주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생생한 표현: 외교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온라인), 2012년 9월 7일, <https://kcnawatch.de/newstream/1451892355-990993567/u-s-forces-presence-in-s-korea-is-vivid-expression-of-hostile-policy-toward-dprk-foreign-ministry-spokesman/>(검색일: 2025.5.15.).

18) 박시영. 2019.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 위협감수에서 위협회피로”, 『국

폐기하고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여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고자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역시 체제생존을 위협하는 압박외교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¹⁹⁾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대북 전략을 ‘체제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무력 중심의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 특히 육·해·공 중심의 전통적 전력 보완 차원에서 사이버 및 우주 영역까지 전장을 확장하며, 정보전·비접촉전 수행 능력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을 군사전략의 핵심축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북한의 SLBM, 정찰위성, 사이버 전력 등의 발전적 모습들은 군사전략 변화의 실증적 결과물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체제는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보건, 식량, 사이버, 우주 등 신홍안보 영역에 대한 전략적 대응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는 단순한 정책 대응을 넘어, 체제 안정성과 통치 정당성 유지를 위한 핵심 통치 관리 영역으로 신홍안보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김정은은 집권 이후 ‘경제 회복’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통치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자연재해, 전염병, 식량난 등 사회 기반 위협을 통제 가능해야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략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제재와 내부 자원 제약이 겹치는 이중 압박 속에서, 김정은 정권은 인민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김정은이 권력 승계 당시 ‘삶의 질 향상’을 공식 약속한 것과도 연결된다.²⁰⁾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와 연이은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위기 대응 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강화했다. 이를 반영하듯이 김정은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 활용됐다. 미디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자연재해’, ‘보건’, ‘식량’ 등 신홍안보 키워드의 언급 빈도는 북한 주요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²¹⁾

김정은 시기 북한이 보건, 식량, 자연재해 등 신홍안보 위협을 통치의 핵심 관리 영역으로 포섭한 것은 미래전 구상과 분리된 별개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아니다. 복합지정학

방연구』, 제62권 제1호, 7-8.

1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2017. 『2017~2018년 한반도리포트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93-94.

20) 김호홍·김일기. 2020. 39-40.

21) 위의 논문, 68-70; 김태은·지성태. 2024.

적 위협 인식 하에 전개되는 북한의 신흥안보 통치는, 내부 사회 안정을 달성함으로써 국가의 최소한 전략 자원을 국방 및 첨단 무기체계 개발로 집중할 수 있게 유도하는 이른바 ‘내부 안정화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체제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버는 북한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전략 도구로 인식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첫째, 대외 공격수단으로 활용했다. 북한은 한국, 미국 등 적대국의 정치·경제·군사 인프라를 교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운용하고 있었다. 둘째, 산업 및 선전 수단으로 활용했다. 예컨대, 북한은 IT 산업을 활용해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혁명역량 제고의 도구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셋째,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정보수집과 사이버 공격뿐만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활동 등으로 그 활용 영역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및 영향력 활동의 범위와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미래전 수행을 위해 사이버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할 전략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²²⁾

요컨대 북한은 전통안보 위협을 포함해서 신흥안보 위협을 단순한 비군사적 리스크가 아닌 정권 안보의 일부이자 미래전 구상의 연장선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북한은 자연재해, 보건, 식량난 등의 신흥안보 위협을 체제 통제력을 결속하는 ‘내부 안정화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관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전략적 자원의 국방 분야 총동원을 위한 물질적 토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비접촉·다영역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 및 우주 영역을 미래전 수행 능력 확보와 핵심 전략무기 고도화를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역량 강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만성적인 자원 제약 상황 속에서도 국가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극대화하여, 신흥안보 통치를 통한 대내 안정과 군사혁신을 통한 대외 억지력 강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22) 김인수. 2015. 132-134; Clint Watts. 2024. “China tests US voter fault lines and ramps AI content to boost its geopolitical interests”, *A Report of Microsoft Threat Analysis Center(MTAC)*, April 4, 2024 (온라인),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4/04/04/china-ai-influence-elections-mtac-cybersecurity/>(검색일: 2025.5.15.).

2.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내부 거버넌스 구조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 가야 합니다”²³⁾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의 방위산업이 외형상 국가 소속의 산업체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중심의 수직통합형 방위산업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은 당의 수반이자 방위산업 부문의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무기체계의 연구, 개발, 생산 전 과정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및 재래식 전력 관련 핵심 국방정책은 대부분 김정은의 지시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을 통해 결정되며, 이후 당 군수공업부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구조를 따른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북한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방위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다. 만약에 무기 생산 계획, 예산 편성, 자재 공급 및 생산 지시 등이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으로 하달되면, 당 군수공업부가 이를 받아 각 방위산업 생산기관은 물론 일반 경제기관까지 명령 체계에 따라 절대 복종하며 수행한다.²⁴⁾

예컨대,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 방침대로 병진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²⁵⁾해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무기들을 생산해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군수공업 부문과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지시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3년 3월 28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장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인용했다.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노동신문, 2023.3.28.)²⁶⁾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 개발을 넘어,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국방력 구

23) “신년사”, 『노동신문』 2015년 1월 1일.

24) 홍민 등. 2023. 106-108.

25) “신년사”, 『노동신문』 2018년 1월 1일.

2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23년 3월 28일.

조의 전환이 당의 군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 시기 북한의 방위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군수산업체계에 한정되지 않고, 당의 정치적 통제와 군사전략, 국가의 자원배분이 상호 연계된 정치·군사·행정의 복합적 정책집행체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당 중심의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전 대비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조직과 자원을 연계하여 전략무기 개발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할 무기체계를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력·재원·생산기반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방식은 대미 전략적 억제력 강화와 이른바 ‘북한식 A2/AD(반접근·지역거부)’ 역량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이 미래전 환경에 대비하여 전략무기의 개발에서 시험·생산·전력화에 이르는 과정을 당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 제한적 기술외교와 전략적·선택적 연계

김정은 정권은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예컨대,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를 통해 무기 개발과 배치 과정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표적인 기술접촉국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국과의 협력은 공식 외교채널뿐 아니라 위장기업, 제3국 IT 인력 파견, 제재 회피 거래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양국 간 관계를 살펴보면, 북중 관계는 2012년 이후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노선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경색되었으며,²⁷⁾ 경제관계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2371호 등)의 적용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예컨대, 2017년 대비 2018년 북중 무역량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²⁸⁾ 그러나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김정은-시진핑 간 정상외교가 복원되면서 북중관계는 일정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 양국 간 실질적인 군사기술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중국과 연계된 기업·IT 인력 및 거래망을 활용하여 기술과 외화를 확보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정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연결망은 북한의 정보통신 기반과 기술역량을 보완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²⁹⁾

27) 장영덕. 2024. “중국의 대북 딜레마와 새로운 접근 방식: 혈맹관계에서 운명공동체로의 전환”, 『한국과 세계』, 제6권 제4호, 887-893.

28) “‘북한 수출 80%, 수입 97% 중국에 의존’ 코트라”, (2019.7.19), 『국민일보』(온라인),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14119>(검색일: 2025.6.26.).

한편, 북러 관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강화되었다. 2024년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이례적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정치·군사·기술 협력을 포괄하는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SLBM 발사체, 위성항법장치 등 전략 무기 실전화에 필수적인 첨단기술 획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기술접촉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³⁰⁾ 또한 북한은 자국의 군사 생산 역량이 제한된 분야를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무기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북한이 과거에도 이중용도 기술 확보를 위해 은밀한 대외 협력을 지속해온 것은 사실이나, 김정은 시기 이후에는 전략무기 실전화와 폐쇄형 국제네트워크의 외연 확대라는 구조적 전환이 병행되며, 협력의 ‘질’과 ‘전략적 노출도’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연계는 조약 체결과 정상회담, 파병 등의 모습을 외부로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과거의 은폐 중심 협력에서 점진적 외부 공개를 병행하는 ‘선택적 노출형 협력전략’으로의 진화를 시사한다.³¹⁾

최근 국제 연구기관들의 평가 역시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Stimson Center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DA: National Aerospace Development Administration), 국방과학원, 발사장 운영기관 등이 장기간 협력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로 평가하고 있으며, CSIS는 북한의 우주개발이 ICBM 개발과 군사정찰 역량을 통합하는 미래전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SIPRI는 북한이 핵탄두뿐 아니라 차세대 화성-20형 ICBM과 미사일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고기동 중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운반체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IISS는 최근 북한이 인공지능을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국제 연구기관들의 평가는 북한의 군사혁신이 단순한 무기체계 개발을 넘어 조직, 기술, 전략이 결합된 미래전 수행체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라 할 수 있다.³²⁾

29) CYBERSECURITYDIVE. 2025. “China helps North Korean operatives land IT roles, bypassing sanctions”, 『CYBERSECURITYDIVE』, 2025.5.13; Jake Rinaldi. 2024a. “China-North Korea Arms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Scholars”, *Asia Policy*, vol.19, no.2, 17-21; Jake Rinaldi. 2024b. “Weapons of Influence: Unpacking China’s Global Arms Strategy”, *Parameters*, vol.54, no.4.

30) 김태현. 2024.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3호.

31) Jake Rinaldi. 2024b; 김태현. 2024.

32) Vann H. Van Diepen. 2023.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IV.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와 작동 메커니즘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장 이후 김일성·김정일 시기의 군사전략적 유산을 계승하는 한편,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군사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의 군사전략이 어떠한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김정은 시기 미래전 전략의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의 특징과 작동과정을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김정은 시기 북한 군사전략의 연속성과 전략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1. 역사적 연속성과 김정은 체제의 군사혁신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 시기부터 축적된 전략적 전통 위에 형성되었다. 김일성 시기의 군사전략은 이념적 자주노선을 기반으로 한 ‘주체전법’에 집중되었다. 이는 선제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전면전 대비형 군사전략이었다.³³⁾ 이후 김정일 시기에는 냉전 종식과 경제난에 따른 생존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며, 선군정치와 비대칭 전략무기 확보가 주요 전략축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정보전, 정밀타격전, 비접촉전 등의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김정은 시기의 전략구성에 기반을 제공하였다.³⁴⁾

김정은은 집권 이후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한 전략무기 실전화에 집중하며, 단기결전형 전략구도와 다영역 전장 활용 역량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SLBM, 정찰위성, 극초음속 무기 등으로 구성된 전략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군사력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억지력 중심 전략에서

Satellite”, *STIMSON*, November 28, 2023 (온라인), <https://www.stimson.org/2023/modest-beginning-s-north-korea-launches-its-first-reconnaissance-satellite/>(검색일: 2025.6.26.); Takaaki Yamamoto. 2025.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Space Capabilities”, *CSIS Aerospace Security Project*, August 19, 2025 (온라인), <https://www.csis.org/analysis/history-and-evolution-north-koreas-space-capabilities>(검색일: 2025.6.26.);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2026. “North Korean Nuclear Forces”, *SIPRI Yearbook 202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ami Kim. 2026. “Assessing North Korea’s AI ambitions”, *IISS ONLINE ANALYSIS*, March 20, 2026 (온라인),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6/03/assessing-north-koreas-ai-ambitions/>(검색일: 2026.5.10.).

33) 권양주. 2014. 『김정은 시대 북한군사의 이해(증보판)』, 서울: KIDA, 163; 임철균·손한별·류의연. 2023. 46.

34) 임철균·손한별·류의연. 2023. 47-48.

공세적 전쟁수행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이 전면전 발생 시 단기 집중 타격을 통해 군사적·정치적 승기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역시 개념을 넘어 실천적 전쟁수행 능력(war-fighting capability) 확보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⁵⁾ 특히 김정은은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군사전략의 기술화·지능화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국방과학부문에서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무기, 정찰위성, SLBM, 무인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략 개념을 실천적 전쟁수행 능력(war-fighting capability) 확보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군사혁신 과정이라 할 수 있다.³⁶⁾

2. 복합지정학적 환경 변화와 전략 공간의 확장

김정은 체제의 군사혁신은 복합지정학적 위협 인식에서 비롯된다. 복합지정학은 전통 안보와 신형안보 위협이 중첩되는 다층적 위협 환경을 설명하며, 특히 기술·정보·서사·지정학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전장으로 인식하는 접근이다.³⁷⁾ 북한은 2010년대 이후 점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우주·정보 공간을 전략 공간으로 전환해 왔으며, 이는 복합지정학적 사고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은 사이버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노동신문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으며³⁸⁾, 이는 복합지정학적 전략 공간 확대의 사례라 할 수 있다.³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능력 고도화가 두드러진다.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현대전의 핵심 전장’으로 간주하며, 정찰·공격·심리전 기능을 통합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우주 공간의 전략화 역시 뚜렷하다. 김정은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두고 “적대세력들의 각양각태의 위협 천만만 침략적 행동들을 주동적으로 억제”가 가능해졌으며,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

35) 위의 논문, 55-59.

36) 홍민. 2025.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 19.

37) 김상배·신범식 엮음. 2017. 21-25.

38) “과학기술은 정면돌파전의 열쇠”, 『노동신문』 2020년 1월 11일.

39)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지정학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 김상배. 2020a.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신형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김상배. 2020b. “코로나19와 신형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제4호; 쉬만스카. 2020. “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복합지정학의 시각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4호; 신승휴. 2023.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63권 제3호.

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했다고 언급했다.⁴⁰⁾ 이러한 우주 기반 감시·정찰 역량은 단순 정보 수집 차원을 넘어, 정밀 타격을 위한 실시간 센서로서의 기능을 갖춘 전력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셋째, 무인기 전력도 복합지정학적 공간 확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8월 북한은 ‘자폭 무인기’ 성능시험을 공개했으며, 김정은은 직접 참관한 현장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 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 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⁴¹⁾ 이는 무인체계가 단순한 정찰도구가 아닌, 기습전·정보전·기만전 등의 다기능 전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사이버·우주·무인체계 등 새로운 영역을 전략적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리적 전장 중심의 인식에서 벗어나 기술과 정보, 물리적 공간과 비물리적 공간이 상호 연계되는 다차원적 전장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전통안보와 신형안보가 상호 결합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하고 있으며, 핵·미사일과 같은 기존 전략전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우주·무인체계 등 새로운 군사역량의 발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군사혁신이 개별 무기체계의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전략공간과 기술영역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합지정학적 시각은 북한이 변화하는 전략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의 방향에 반영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3. 네트워크 국가 이론과 북한식 군사혁신 추진구조

김정은 체제는 기존의 ‘군 중심’ 전략구조에서 벗어나 노동당이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전반을 주도하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국가 이론은 다양한 행위자 간의 수평적 연계와 상호작용을 강조하지만, 본고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정책집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

4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으시어 정찰위성발사성공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노동신문』 2023년 11월 24일.

4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온라인), 2024년 8월 26일, <https://kcnawatch.de/newstream/1724624058-611807113/%EA%B2%BD%EC%95%A0%ED%95%98%EB%8A%94-%EA%B9%80%EC%A0%95%EC%9D%80%EB%8F%99%EC%A7%80%EA%BB%98%EC%84%9C-%EA%B5%AD%EB%B0%A9%EA%B3%BC%ED%95%99%EC%9B%90-%EB%AC%B4%EC%9D%B8%EA%B8%B0%EC%97%B0%EA%B5%AC/> (검색일: 2025.5.15.).

구조’라는 분석개념으로 재해석하여 적용한다. 특히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등 군사혁신 관련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연구개발·생산·시험·전력화에 이르는 과정을 당의 정치적 통제 아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는 복수의 조직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강한 정치적 위계성과 중앙집권성이 결합된 권위주의적 네트워크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⁴²⁾

예컨대, 북한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리고, 군수공업부는 기획 및 자원분배를, 국방과학원은 기술 연구를, 제2경제위원회는 생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당 중심의 명령체계와 기술·산업 연계망이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는 북한식 네트워크 국가 모델의 대표적 사례이다.⁴³⁾ 또한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 우호국가와의 제한적 기술접촉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폐쇄성과 전략적 연계성을 동시에 지닌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로 기능한다.⁴⁴⁾ 특히 북한은 중국·러시아 등과의 제한적 기술접촉 네트워크와 해외 IT 인력 및 제재 회피 거래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외부 협력을 전략적·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⁴⁵⁾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가 단순히 여러 기관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체계가 아니라는 것이며, 당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연구개발(R&D), 생산, 시험평가, 실전배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집행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2023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개발 및 발사 사례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다. 해당 사례를 추적해보면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그 당시 전략적 목표는 김정은이 제8차 노동당 대회(2021)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공식화되었다. 당시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 확보를 핵심 국방과제로 제시하면서 미래전 수행을 위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보를 국가적 전략목표로 설정하였다.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연구개발·생산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 집중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⁴⁶⁾

42) 정성임. 2012. “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29-50.

43) 홍민 등. 2023.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101-116.

44) Jake Rinaldi. 2024a. 17-21.

45) CYBERSECURITYDIVE. 2025.

46) 김서현, “북한의 ‘우주개발’ 중요 과업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는 언제”, 『뉴스1』(온라인),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028333>(검색일: 2025.5.15.).

다음 단계에서는 국방과학원이 위성체와 발사체의 연구개발을 담당하였으며,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NADA)은 위성 설계와 발사 운영을 수행하였다. 제2경제위원회와 산하 군수공장은 추진체와 전자장비, 통신체계 등 핵심 부품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국가계획위원회는 자재와 생산계획의 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과정은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공업부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된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속에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⁴⁷⁾ 시험발사 과정 역시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였다. 2023년 5월과 8월 발사 실패 이후 김정은은 실패 원인을 직접 보고 받고 후속 개발을 지시하였으며, 연구개발 조직과 생산기관은 즉각 기술적 보완 작업을 수행했다. 같은 해 11월 세 번째 발사에서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하자 북한은 이를 단순한 과학기술 성과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성공으로 선전했다. 김정은은 발사 직후 위성사진을 직접 확인하는 장면을 공개하였으며, 이어서 “우리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제고함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라고 밝혔다.⁴⁸⁾ 이 사례는 북한의 군사혁신이 ① 당 최고지도자의 전략적 결정, ②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정책조정, ③ 군수공업부의 사업관리, ④ 국방과학원의 연구개발, ⑤ 제2경제위원회의 생산, ⑥ 관련 부서 실천운동이라는 단계적 정책집행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혁신은 개별 기관의 기술혁신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권위와 과학기술 체계가 결합된 정책집행 네트워크(policy implementation network)를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본고가 제시하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의 실질적 작동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북러 군사협력과 폐쇄형 국제네트워크의 작동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에서 주목할 변화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외교적 연대나 무기거래를 넘어 인력·무기·전장경험·군사기술이 교환되는 전략적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6월 19일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이러한 관계 변화의 제도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동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가 조약 제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북러 관계는 과거의 제한적 전략협력을 넘어 상호 군사원조가 제도화된 준동맹적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⁴⁹⁾

47) 홍민 등. 2023. 93-116.

48)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틀어쥐어”, (2023.11.23), 『민플러스』(온라인),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2>(검색일: 2026.8.10.).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실제 군사협력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대규모 군수물자를 공급해 왔다. CSIS는 2023년 8월 이후 나진항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해상운송망을 위성영상으로 추적하여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이전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북러 군사협력이 공식적인 국가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의 감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제한적·은폐적 네트워크를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⁰⁾

북러 군사협력은 무기와 탄약의 이전을 넘어 북한군의 직접적인 전투 참여로 확대되었다. 북한은 2025년 4월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인정하면서 이를 2024년 북러 조약 제4조에 따른 군사협력으로 설명하였다.⁵¹⁾ SIPRI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주요한 국제적 군사개입 사례로 다루고 있다.⁵²⁾ 이러한 파병은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드론, 정밀타격, 전자전, 실시간 정보공유, 포병과 무인체계의 결합 등 현대전의 전술적 변화를 실제 전투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North는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체계의 실제 전장 운용을 통해 성능과 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무기체계 개선에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⁵³⁾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북한에 단순한 군사지원 공간을 넘어 무기체계의 실전 검증과 전장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쎌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온라인), 2024년 6월 20일, <https://kcnawatch.org/newstream/1718858758-996378263/%E3%80%8A%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A%B3%BC-%EB%A1%9C%EC%94%A8%EC%95%BC%EB%A0%A8%EB%B0%A9%EC%82%AC%EC%9D%B4%EC%9D%98-%ED%8F%AC/>(검색일: 2026.8.10.); 양지호, “북러 관계, 실질적 군사 동맹 넘어 혈맹으로 진화”, (2024.10.19.), 『조선일보』(온라인),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0/19/6IMOFMEYNEFBLHR23J3L3NPPA/>(검색일: 2026.8.10.); 이광길, “‘차가운 평화’에서 ‘뜨거운 만남’으로?”, (2025.12.19), 『통일뉴스』(온라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56>(검색일: 2026.8.10.).

50)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2024. “Major Munitions Transfers from North Korea to Russia”, February 28, 2024 (온라인), <https://beyondparallel.csis.org/major-munitions-transfers-from-north-korea-to-russia/>(검색일: 2026.8.10.).

51) 배재성, “北, 러시아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근거해 참전 결정’”, (2025.4.28), 『중앙일보』(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829>(검색일: 2026.8.10.).

5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5. *SIPRI YEARBOOK 2025*,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53) Tianran Xu. 2025. “North Korea’s Lethal Aid to Russia: Current State and Outlook”, 『38 NORTH』, February 14, 2025 (온라인), <https://www.38north.org/2025/02/north-koreas-lethal-aid-to-russia-current-state-and-outlook/>(검색일: 2026.8.10.).

2026년 들어 추가적인 군사적 연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6년 8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배치되고 있으며, 최대 120기의 탄도미사일과 6기의 발사대가 관련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⁵⁴⁾ 다만 이는 북한이나 러시아의 공식 확인 또는 복수의 독립적 자료를 통해 검증된 사실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북한군의 추가적 전장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자료로 제한하여 활용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이다. 과거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은 주로 정보기관이나 언론의 평가와 추정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 2025년 이후 일부 분야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2025년 5월 다자제재모니터링팀(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MSMT)이 공개한 보고서는 북러 간 무기이전과 북한군 훈련 등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양상을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는 북한에 방공·전자전 관련 장비를 제공하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전장 운용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성능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⁵⁵⁾

특히 러시아제 Pantsir 계열 단거리 방공체계와 관련 장비의 대북 제공은 북러 협력이 경제적 보상을 넘어 북한의 군사역량 보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축적된 운용자료와 경험이 북한에 환류될 경우 미사일 운용과 전자전 능력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러 협력은 ‘북한의 무기·병력 제공 → 러시아 전장에서의 실전 운용 → 전장 데이터와 경험 축적 → 러시아의 장비·기술 및 운용지식 제공 → 북한 군사역량 개선’으로 이어지는 군사혁신의 환류구조(feedback loop)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⁵⁶⁾

이러한 작동방식은 본고가 제시한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의 경험적 적실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폐쇄형’은 북한이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제재와 전략적 고립 속에서도 러시아와 같은 특정 행위자와의 연결을 선택적으로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원·기술·전장경험을 보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대외 네트워크는 개방적·다원적 연결이 아니라 정권이 필요한 연결대상을 선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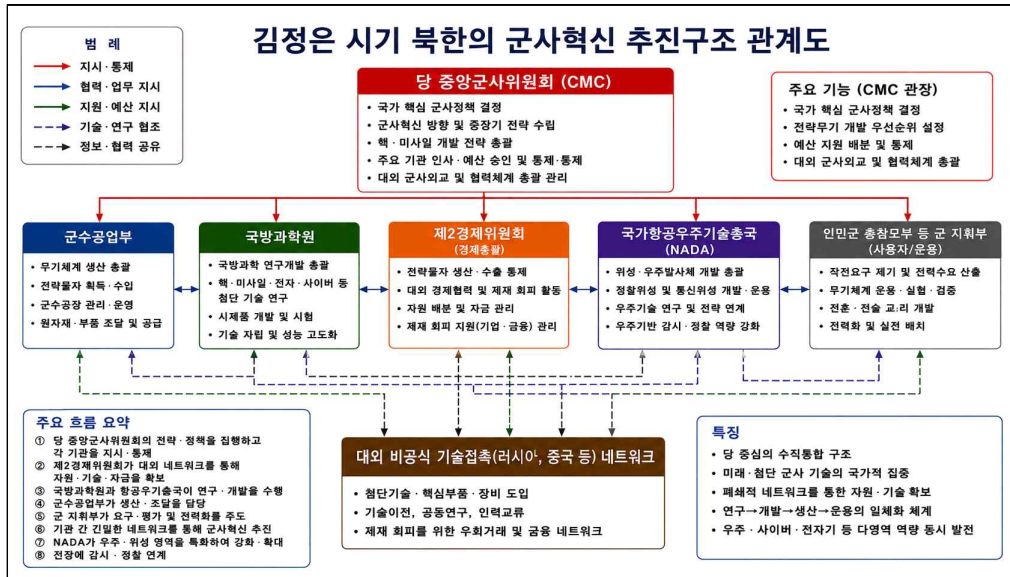
54) 진형근. 2026. “북한 미사일 부대 러시아 배치...우크라이나 비상”,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8/2026080711145724792bd56fbc3c_1(검색일: 2026.8.10.).

55) MSMT,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29, 2025, [https://msmt.info/view/save/2025/05/29/1085cade-a4b1-4405-94c0-7c980c24fd21-Unlawful_Military_Cooperation_including_Arms_Transfers_between_North_Korea_and_Russia_\(MSMT_2025_1\).pdf](https://msmt.info/view/save/2025/05/29/1085cade-a4b1-4405-94c0-7c980c24fd21-Unlawful_Military_Cooperation_including_Arms_Transfers_between_North_Korea_and_Russia_(MSMT_2025_1).pdf)(검색일: 2026.8.10.).

56) Tianran Xu. 2025.

고 그 내용과 범위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식적·은폐적 경로를 활용하는 ‘선택적 연결성(selective connectivity)’을 특징으로 한다. CSIS가 추적한 나진항을 중심으로 한 북러 해상수송망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⁵⁷⁾ 이상의 과정을 본고의 분석틀에 적용하면 북한의 군사혁신은 내부적 수직통합성과 외부적 선택적 연결성이 결합된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만리경-1호 사례가 노동당을 중심으로 국방과 학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군수산업 및 군 조직을 연결하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 집행구조’의 작동을 보여준다면, 2024년 이후 북러 군사협력은 국제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와 전략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군사적 자원과 전장경험, 장비 및 기술적 지원을 보완하는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의 작동 사례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혁신은 복합지정학적으로 확장된 전략환경 인식,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가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북한은 핵·전략무기의 억지력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전 운용과 전장경험을 군사혁신에 반영하면서 미래전 수행능력의 점진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아래 <그림 4-1>은 이러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와 각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출처: 저자 작성

<그림 4-1>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 관계도

57)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2024.

5. 북한 군사혁신 추진구조 비교 분석: 미·중·러 사례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는 전략무기 중심의 기술 혁신, 작전개념의 진화, 복합전장 인식 확대라는 측면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북한은 군사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핵·미사일 체계의 다변화, 사이버전·우주전·전자전 등 다영역 전장 활용 역량 확대, 그리고 정찰위성 및 무인기와 같은 첨단 전력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이후 군사강국들이 주도해온 군사혁신의 일반적 경향과 일치한다.⁵⁸⁾

그러나 북한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요국들과 뚜렷이 구분된다. 첫째, 정치-군사-기술 거버넌스가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로 결합된 형태를 보인다.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등 당 기관의 전략기획-개발-생산-배치 전 과정을 일원적으로 통제하는 ‘당 중심 수직통합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더 높은 집중성과 통제성을 보인다. 둘째, 북한은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인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자국 주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및 방산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반면, 북한은 주로 중국·러시아와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이중용도 기술 확보와 국방과학원 중심의 폐쇄적인 R&D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셋째, 체제 생존을 위한 억지 이상을 지향하는 전략적 모호성과 실행전략의 병행이다. 미국,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이 억지(deterrence) 또는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한 명확한 교리 및 전략 개념에 기초해 군사혁신을 설계하는 데 반해,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전적 운용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군사혁신이 단순한 기술 추종이 아니라, 내부의 강한 정치적 통제와 외부의 선택적 연결을 결합한 독자적인 적응형 군사혁신 모델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북한은 복합지정학 및 수직통합형 네트워크 국가 모델이 결합된 독자적 군사혁신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러시아 등 군사강국들과는 전략환경, 혁신주체, 네트워크 유형, 목표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아래 <표 4-1>을 비교·분석해 보면, 각 국가의 군사혁신 추진구조는 해당 국가가 직면한 전략환경과 국가목표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달리 체제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당 중심의 통제체계를 기반으로 핵·미사일 및 미래전 역량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독특한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형성해 가고 있다.

58) Lawrence Freedman, 2017.

〈표 4-1〉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군사혁신 추진구조 비교

구 분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전략환경	글로벌 경쟁 및 기술우위 유지	미중 전략경쟁 및 군 현대화	NATO와의 전략경쟁 및 비대칭 대응	체제생존 및 대미·대남 군사적 열세 보완
혁신주체	전쟁부-군-방산업체-민간 기술기업	당-군-민 융합	국가주도	당 중심
네트워크 유형	개방형	반개방형	국가주도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
목표	우위 확보	경쟁 우위	억지	체제보장 + 전력화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본고는 북한이 이미 미국이나 한국 수준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을 구현하였거나 완전한 미래전 수행능력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고의 관심은 북한이 미래전 수행능력 확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략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의 이론적 기여는 복합지정학을 통해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을 설명하고, 재해석된 네트워크 국가 이론을 통해 내부의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와 외부의 선택적 연결구조가 군사혁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미래전 수행능력을 이미 확보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 미래전 수행능력 확보를 목표로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요컨대 본고가 제시하는 정책적 대응방향은 일반적인 대북 군사대응 방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앞서 도출한 세 가지 분석축인 전략환경 인식,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와 각각 직접 연계된다. 첫째,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이 전통적 군사위협을 넘어 우주·사이버·AI·정보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

은 새로운 위협의 출현과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미래전 전략환경 조기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둘째,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를 통해 전략결정, 연구개발, 생산, 시험평가, 전력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분석은 개별 무기체계가 아니라 북한 군사혁신의 전체 추진 메커니즘을 추적하는 통합 군사혁신 감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북한이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 등 특정 국가와 선택적·전략적으로 연결되어 군사기술과 부품, 전장경험을 획득하고 있다는 분석은 이러한 외부 연결망을 추적하고 기술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군사기술 연계 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고의 정책제언은 세 분석축에서 확인된 북한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의 작동원리를 각각 대응정책으로 전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 변화에 대응한 ‘미래전 전략환경 조기경보체계(Future Warfare Strategic Environment Early Warning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은 미래전의 범위를 핵·미사일 중심의 전통적 군사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사이버, 우주, 무인체계, 인공지능, 정보전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개별 무기체계의 개발 여부만으로 평가할 경우 새로운 위협의 출현과 상호연계 가능성을 적시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전략환경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① 핵·미사일과 사이버·우주·AI·무인체계 간 융합 동향, ② 새로운 전략·교리와 군사훈련의 변화, ③ 북한 공식매체와 당 문건에 나타나는 미래전 관련 개념의 변화, ④ 신기술의 군사적 전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산업, 사이버, 우주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전략환경 변화 식별-위협 전환 가능성 평가-군사적 대응방향 설정’으로 연결되는 분석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당 중심 수직통합형 정책집행구조에 대응한 ‘한국형 통합 군사혁신 감시체계(Korean Integrated Military Innovation Monitoring System)’ 구축이 요구된다. 북한의 군사혁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정점으로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관련 군수공장 및 군 조직이 연결된 수직통합형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군사정보 분석 역시 개별 미사일 시험이나 신형 무기의 공개 여부를 추적하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전략결정이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평가, 전력화로 전환되는 전체 과정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① 당·군·정 조직 및 핵심 인물 변화, ② 국방과학 연구기관과 생산시설의 활동, ③ 군수산업 자원배분과 생산능력 변화, ④ 무기체계의 시험·훈련·실전배치 징후를 연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 합동참

모본부, 국방정보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정책결정-징후-연구개발-생산-시험-전력화’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통합 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북한 군사혁신의 결과가 나타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사혁신이 형성되고 추진되는 과정 자체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대응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폐쇄형 국제네트워크 구조에 대응한 ‘복중·복려 군사기술 연계 추적 및 확산통제 체계(Military Technology Linkage Tracking and Non-Proliferation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본고의 분석에서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와 선택적으로 연결되면서 자국이 확보하기 어려운 군사기술, 이중용도 부품, 생산설비, 정보 및 전장경험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복려 군사협력 심화는 북한의 폐쇄형 국제네트워크가 단순한 제재 회피를 넘어 군사혁신을 보완하는 전략적 통로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한국은 ① 위성·반도체·AI·사이버·무인체계·항법·추진기관·잠수함 등 핵심 이중용도 기술의 이동을 추적하고, ② 해외 기업·무역회사·연구기관·IT 인력 등 비공식 연결망을 분석하며, ③ 복려 군사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장경험과 운용정보의 북한 유입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술연계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일본 및 유럽 주요국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다자 수출통제체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술과 부품에 대한 예방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사후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외부 군사혁신 네트워크가 실제 전력증강으로 연결되기 이전 단계에서 기술확산 경로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정책적 제언은 서로 독립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대응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략환경 인식에 대한 조기경보는 북한이 어떤 미래전 능력을 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군사혁신 추진구조에 대한 감시는 그러한 전략적 의도가 어떠한 조직과 정책집행 과정을 통해 실제 전력으로 전환되는지를 추적하는 단계이며, 폐쇄형 국제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는 그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기술·자원·경험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 역시 ‘전략환경 변화의 조기 식별 → 군사혁신 추진과정의 추적 → 외부 기술연계의 차단’이라는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미래전은 기술혁신과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 복합적 안보환경 속에서 전개되며, 기존의 억제와 사후대응 중심 전략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다차원적 위협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을 단순한 무기체계 증강이 아니

라 전략환경 인식, 내부 정책집행구조, 국제네트워크가 상호 결합된 장기적 국가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역시 개별 위협에 반응하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전략환경 변화와 군사혁신의 형성과정을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확산과 전력화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설계자(Strategic Design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북한이라는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공식자료가 지닌 선전성과 자료접근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약을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틀과 정책제언은 확정적 결론이라기보다 북한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추진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구체적 기술이전 과정과 북한의 실제 전장경험 환류 여부, 그리고 중국·러시아 등 다른 권위주의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틀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봉준. 2023. “미래전과 자율무기체계의 미중경쟁과 한국”, 『정치·정보연구』, 제24권 제2호.
- 『국민일보』(온라인). “북한 수출 80%, 수입 97% 중국에 의존’ 코트라”, (2019.7.19),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14119>(검색일: 2025.6.26.).
- 권양주. 2014. 『김정은 시대 북한군사의 이해(증보판)』, 서울: KIDA.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2017. 『2017~2018년 한반도리포트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보미. 2023. “김정은 시기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 『INSS 연구보고서』, 22-0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보미·김일기. 2020.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와 군사분야 동향”, 『INSS 전략보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김서현. “북한의 ‘우주개발’ 중요 과업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는 언제”, (2023.4.27), 『뉴스1』(온라인), <https://www.news1.kr/nk/politics-diplomacy/5028333>(검색일: 2025.5.15.).
- 김상배·신범식 엮음. 2017. 『한반도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상배. 2020a.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경쟁: 신흥안보와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가전략』, 제26권 제2호, 세종연구소.
- 김상배. 2020b. “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제54권 제4호, 한국정치학회.
- 김상배. 2021. 『네트워크 국가론: 미래 세계정치 연구의 이론적 기초』,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상배 엮음. 2022. 『미래전 전략과 군사혁신 모델』,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연수. 2020. “김정은체제하 북한의 안보정책 진단: 위협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 분석: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문장권)

제2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 김인수. 2015. “북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의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통일연구원.
- 김태은·지성태. 2024.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북한 미디어 기반 신흥안보 동향 분석”, 『아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아시아학회.
- 김태현. 2015. “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66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태현. 2024.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군 전력증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전망”, 『한국국가전략』, 제9권 제3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김호흥·김일기. 2020. “김정은 시대 신안보 정책과 남북한 협력 방향: 감염병, 환경,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INSS 연구보고서』, 2020-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노동신문』. “신년사”, 2013년 1월 1일.
- 『노동신문』. “신년사”, 2014년 1월 1일.
- 『노동신문』. “신년사”, 2015년 1월 1일.
- 『노동신문』. “신년사”, 2018년 1월 1일.
- 『노동신문』. “과학기술은 정면돌파전의 열쇠”, 2020년 1월 11일.
-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었다”, 2023년 3월 28일.
- 『노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으시어 정찰위성발사성공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2023년 11월 24일.
- 『민플러스』(온라인).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틀어쥐어”, (2023.11.23),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02>(검색일: 2026.8.10.).
- 문장권. 2020.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군사혁신 방안 연구: 합동 신속 대응부대 창설 시 효과 분석”, 『군사연구』, 제150집, 육군군사연구소.
- 문장권·김현식·이한우. 2023.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증강에 대한 연구”, 『통일연구』, 제27권 제2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 박시영. 2019. “핵무력 완성 선언 전후 북한의 위협인식과 ‘선호의 역전’: 위험감수에서 위험회피로”, 『국방연구』, 제62권 제1호,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배재성. “北, 러시아 파병 공식확인...“북러조약 근거해 참전 결정””, (2025.4.28), 『중앙일보』(온라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829>(검색일: 2026.8.10.).
- 송세관. 2018.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와 한국군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승휴. 2023.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진화: 복합지정학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63권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쉬만스카. 2020. “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복합지정학의 시각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4호,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강경·설현주. 2024.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32권 제2호, 대한정치학회.
- 이광길. “‘차가운 평화’에서 ‘뜨거운 만남’으로?”, (2025.12.19), 『통일뉴스』(온라인),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56>(검색일: 2026.8.10.).
- 이동민. 2015.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한국동북아논총』, 제20권 제2호, 한국동북아학회.

- 이병철. 2023. “북한의 핵전략 변화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제 63호,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이상택. 2019.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 제112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임철균. 2023. “북한의 군사혁신과 전략변화 가능성이 주는 함의: 북·중 군사혁신간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제79권 제1호, 육사 화랑대연구소.
- 임철균·손한별·류의연. 2023.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구상 연구”, 『한국국가전략』, 제8권 제3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양지호. “북러 관계, 실질적 군사 동맹 넘어 혈맹으로 진화”, (2024.10.19), 『조선일보』(온라인),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0/19/6IMOFMEYNEFBHLHR23J3L3NPPA/>(검색일: 2026.8.10).
- 『조선중앙통신』(온라인). 2012년 7월 9일. “미군의 남한에 주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의 생생한 표현: 외교부 대변인”, <https://kcnawatch.de/newstream/1451892355-990993567/u-s-forces-presence-in-s-korea-is-vivid-expression-of-hostile-policy-toward-dprk-foreign-ministry-spokesman/>(검색일: 2025.5.15.).
- 『조선중앙통신』(온라인). 2024년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 비치 뿌전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하시었다”, <https://kcnawatch.de/newstream/1718858758-996378263/%E3%80%8A%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A%B3%BC-%EB%A1%9C%EC%94%A8%EC%95%BC%EB%A0%A8%EB%B0%A9%EC%82%AC%EC%9D%B4%EC%9D%98-%ED%8F%AC/>(검색일: 2026.8.10.).
- 『조선중앙통신』(온라인). 2024년 8월 26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무인기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https://kcnawatch.de/newstream/1724624058-611807113/%EA%B2%BD%EC%95%A0%ED%95%98%EB%8A%94-%EA%B9%80%EC%A0%95%EC%9D%80%EB%8F%99%EC%A7%80%EA%BB%98%EC%84%9C-%EA%B5%AD%EB%B0%A9%EA%B3%BC%ED%95%99%EC%9B%90-%EB%AC%B4%EC%9D%B8%EA%B8%B0%EC%97%B0%EA%B5%AC/>(검색일: 2025.5.15.).
- 조현석. 2018.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와 미래 전쟁의 변환”,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권 제1호, 21세기정치학회.
- 장영덕. 2024. “중국의 대북 딜레마와 새로운 접근 방식: 혈맹관계에서 운명공동체로의 전환”, 『한국과 세계』, 제6권 제4호, 한국국회학회.
- 정성임. 2012. “북한의 민군관계: 군의 성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 진형근. 2026. “북한 미사일 부대 러시아 배치...우크라이나 비상”,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8/2026080711145724792bd56fbc3c_1(검색일: 2026.8.10.).
- 함형필. 2021.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 홍민. 2025.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주요 내용과 체계”, 『북한경제리뷰』, 제27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 홍민 등. 2023.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통일연구원.
- Bermudez, Joseph S.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2024. “Major Munitions Transfers from

김정은 시기 북한의 미래전 전략 형성과 군사혁신 추진구조 분석: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문장권)

- North Korea to Russia”, February 28, 2024 (온라인). <https://beyondparallel.csis.org/major-munitions-transfers-from-north-korea-to-russia/>(검색일: 2026.8.10.).
- Cancian, Mark F., Matthew Cancian, Eric Heginbotham. 2023. *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 : Wargaming a Chinese Invasion of Taiwan*, Washington, D.C.: CSIS.
- Castells, Manuel. 2010. *The Power of Identity* (2nd ed.), Oxford: Wiley-Blackwell.
- Cohen, Raphael S. et al. 2020. *The Future of Warfare in 2030*, Santa Monica, Calif.: RAND.
- Cronin, Audrey Kurth. 2020. *Power to the People: How Open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rming Tomorrow's Terroris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YBERSECURITYDIVE. 2025.5.13. “China helps North Korean operatives land IT roles, bypassing sanctions”, 『CYBERSECURITYDIVE』, <https://www.cybersecuritydive.com/news/north-korea-it-worker-scam-china-research/748009/>(검색일: 2025.5.15.).
- Freedman, Lawrence. 2017. *The Future of War*, New York: PublicAffairs.
- Hammes, Thomas X. 2006. *The Sling and The Stone: ON WAR IN THE 21st CENTURY*, Minnesota: Zenith Press.
- Kahler, Miles, ed. 2009.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im, Lami. 2026. “Assessing North Korea’s AI ambitions,” IISS ONLINE ANALYSIS, March 20, 2026 (온라인), <https://www.iiss.org/online-analysis/online-analysis/2026/03/assessing-north-koreas-ai-ambitions/>(검색일: 2026.5.10.).
- Kristensen, Hans M. and Matt Korda. 2026. “North Korean Nuclear Forces”, *SIPRI Yearbook 202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tiff, Robert H. 2017. *FUTURE WAR: Preparing for the New Global Battlefield*, New York: ALFRED A. KNOPF.
- McFate, Sean. 2019. *The New Rules of War*. New York: William Morrow Paperbacks.
- MSMT, 『Unlawful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Arms Transfer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ay 29, 2025 (온라인), [https://msmt.info/view/save/2025/05/29/1085cade-a4b1-4405-94c0-7c980c24fd21-Unlawful_Military_Cooperation_including_Arms_Transfers_between_North_Korea_and_Russia_\(MSMT_2025_1\).pdf](https://msmt.info/view/save/2025/05/29/1085cade-a4b1-4405-94c0-7c980c24fd21-Unlawful_Military_Cooperation_including_Arms_Transfers_between_North_Korea_and_Russia_(MSMT_2025_1).pdf)(검색일: 2026.8.10.).
- Payne, Kenneth. 2021. *I, Warbot: The Dawn of Artificially Intelligent Conflict*, London: Hurst Publishers.
- Rinaldi, Jake. 2024a. “China-North Korea Arms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Scholars”, *Asia Policy*, vol.19 no.2.
- Rinaldi, Jake. 2024b. “Weapons of Influence: Unpacking China’s Global Arms Strategy”, *Parameters*, vol.54 no.4.
- Sassen, Saskia. 2006. *Territory, Authority, Rights: From Medieval to Global Assemblag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arre, Paul. 2019. *Army of None: Autonomous Weapons and the Future of War*.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2025. *SIPRI YEARBOOK 2025*, Oxford

-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Van Diepen, Vann H. 2023. “Modest Beginnings: North Korea Launches Its First Reconnaissance Satellite”, *STIMSON*, November 28, 2023 (온라인), <https://www.stimson.org/2023/modest-beginnings-north-korea-launches-its-first-reconnaissance-satellite/>(검색일: 2025.6.26.).
- Watts, Clint. 2024. “China tests US voter fault lines and ramps AI content to boost its geopolitical interests,” *A Report of Microsoft Threat Analysis Center(MTAC)*, 4 April, 2024 (온라인),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24/04/04/china-ai-influence-elections-mtac-cybersecurity/>(검색일: 2025.5.15.).
- Yamamoto, Takaaki. 2025.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Space Capabilities”, *CSIS Aerospace Security Project*, August 19, 2025 (온라인), <https://www.csis.org/analysis/history-and-evolution-north-koreas-space-capabilities>(검색일: 2025.6.26.).
- Xu, Tianran. 2025. “North Korea’s Lethal Aid to Russia: Current State and Outlook”, 『38 NORTH』, February 14, 2025 (온라인), <https://www.38north.org/2025/02/north-koreas-lethal-aid-to-russia-current-state-and-outlook/>(검색일: 2026.8.10.).

【 Abstract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Future Warfare Strategy Formation
and Military Innovation Implementation Structure under Kim Jong Un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of Complex Geopolitics and Network State Theory**

Moon, Jangkw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North Korea's future warfare strategy and the implementation structure of its military innovation under Kim Jong Un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complex geopolitics and network state theory, and to propose policy responses based on the finding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North Korea's military innovation operates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ree analytical dimensions: strategic environment perception, a Party-centered vertically integrated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a closed international network structure. North Korea is expanding the domains of future warfare into space, cyberspace, and unmanned systems while advancing the operationalization of its nuclear and strategic weapons, linking these effort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ion, testing, and force deployment through a Party-centered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It also supplements its technological capabilities, components, information, and battlefield experience through selective linkages with China and Russia within a closed international network structu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s military innovation unfolds as a sequential process of 'strategic environment perception-internal policy implementation-selective linkage of external resources-development of future warfare cap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ree policy responses for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ing a Future Warfare Strategic Environment Early Warning System, a Korean Integrated Military Innovation Monitoring System, and a Military Technology Linkage Tracking and Non-Proliferation System focusing on North Korea's military-technology linkages with China and Russia.

Key Words : Future Warfare Strategy, Military Innovation, Complex Geopolitics, Network State Theory, Strategic Environment Perception, Party-Centered Vertically Integrated Policy Implementation Structure, Closed International Network Structure